

# 우리나라 서비스업 고용구조의 특징과 문제점

황 수 경\*

## I. 머리말

우리 경제에서 제조업의 고용창출 여력이 점점 더 위축되면서 서비스업 성장을 통한 고용창출에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빠르게 서비스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경제의 서비스화 정도는 선진국과 비교해 낮은 수준에 불과하여 서비스산업에서 성장 및 고용창출 여력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2000~2008년 기간 중 고용탄성치(GDP Elasticity of Employment)로 살펴본 고용창출능력은 제조업이 -0.10, 서비스업이 0.66으로 나타나(황수경 외, 2010), 우리 경제가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할 때 고용 없는 성장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서비스업이 동반 성장해야 고용도 함께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경제에서 고용창출을 주도해온 서비스 업종들에서 생산성이 매우 저조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심지어는 생산성이 감소하여 경제 전체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상들이 서비스화 추세와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이 구조화되면 단기적으로 고용창출 성과를 낼 수 있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성장동력을 훼손하여 결과적으로 고용창출이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서비스화 추세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수반된 서비스업의 고용구조 및 일자리 특성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로부터 서비스업의 고용창출 전략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skhwang@kdi.re.kr).

## II. 우리나라 서비스화의 추세와 특징

### 1. 우리나라 서비스화의 추세

1970년대 한국경제는 빠른 공업화와 함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비중 증가로 나타나는 탈농업화로 요약되었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산업화가 성숙단계에 들어가며 제조업의 고용비중이 감소하는 탈공업화 현상이 급진전되고 있다. 제조업의 고용비중은 1989년 27.8%에서 2009년 16.3% 수준으로 대폭 감소하였고, 반면에 서비스 부문의 고용이 빠르게 증가하여 같은 기간 중 서비스업의 고용비중은 45.3%에서 68.5%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같이 경제의 중심이 재화를 생산하는 제조업에서 서비스를 생산하는 서비스 부문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서비스 경제(service economy)’ 혹은 ‘경제의 서비스화(tertiarization)’라고 일컫는다. 서비스화는 고도로 산업화된 국가에서 관찰되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대부분의 서구 국가들에서 1960~1970년대에는 서비스산업이 광공업에 압도하였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서비스산업이 경제의 3분의 2 이상을 점하게 되었다. 서비스 경제의 선두국가라 할 수 있는 미국은 1960년대부터 이미 서비스화가 진행되어 2008년 현재 전체 고용의 약 80%가 서비스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이후 빠르게 서비스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우리 경제의 서비스화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2008년 현재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고용비중은 OECD 30개국 가운데 21번째를 기록하고 있다.

〈표 1〉 주요국의 서비스업 고용비중과 소득수준

(단위 : %, US\$)

	서비스업 고용비중			1인당 GDP (2008)
	1990	2000	2008	
한국	46.7	61.3	67.3	23,329
일본	58.7	63.7	68.5	28,140
독일	57.9	63.7	67.8	28,602
프랑스	64.6	74.0	76.5	27,274
스웨덴	67.4	73.0	76.2	32,314
영국	65.5	73.3	77.2	30,082
미국	70.9	74.4	79.5	38,559
OECD 평균	-	66.1	70.7	27,514

주 : 1인당 GDP는 2000년 구매력지수(PPP) 기준.

자료 : OECD, "OECD Labour Force Survey"; OECD, *OECD National Accounts at a Glance*.

## 2. 우리나라 서비스화의 특징

선진국들에 비해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한편에서는 그만큼 서비스산업에 성장 여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성장이 충분한 부가가치 창출로 연결되어야 하며, 적어도 경제 전체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단서가 붙는다. 즉 서비스화 과정에서 서비스업의 투입(고용) 증가에 조응하는 산출(부가가치) 증가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비스화 과정에서 투입 증가에 비해 산출 증가는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쳤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990년대 서비스산업의 고용비중은 연평균 1.5%포인트씩 증가한 데 비해, 같은 기간 서비스산업이 산출하는 부가가치비중은 연평균 0.5%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00년대 들어서도 고용비중은 연평균 0.6%포인트씩 증가하였지만 부가가치비중은 연평균 0.3%포인트 증가에 머물렀다. 서비스업에서 투입이 증가한 만큼 산출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서비스화가 경제 전체의 생산성 증가를 둔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해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2> 서비스화의 두 측면: 고용과 생산

(단위 : %p)

	산업 <sup>1)</sup>		서비스업	
	고용비중 변화	부가가치비중 변화	고용비중 변화	부가가치비중 변화
1980년대	0.8	0.2	0.8	0.2
1990년대	-0.7	0.2	1.5	0.5
2000년대 <sup>2)</sup>	-0.3	-0.1	0.6	0.3

주: 1) 산업은 광공업(에너지 포함)을 의미.

2) 2000년대의 경우 고용비중은 2008년, 부가가치비중은 2007년까지의 연평균 변화.

자료: OECD, "OECD Labour Force Survey"; OECD STAN database.

## III. 서비스업 고용구조의 특징과 문제점

### 1. 과도한 자영업 비중과 영세성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자영업 비중이 높고 소규모 사업체 비중도 높아 영세성을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2009년 현재 서비스산업에서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포함)가 차지하는 비중은 28.8%로 제조업(14.6%)의 거의 두 배에 달한다(표 3 참조). 최근 내수부진과 과다경쟁으로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자영업자 비중은 OECD 국가 중 단연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그림 1 참조), 주요 선진국에 비해 적게는 3배, 많게는 5배 이상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서비스업과 제조업에서의 자영업자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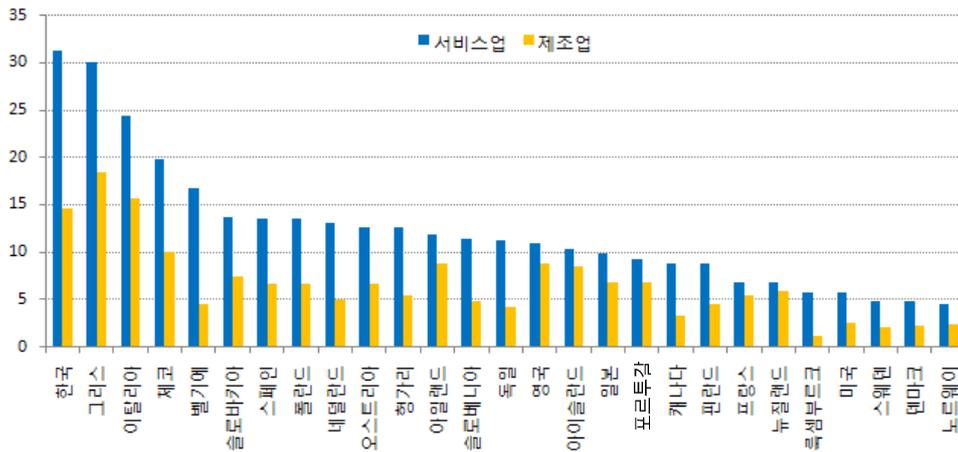
(단위: %)

	2004	2009
서비스업	33.7	28.8
제조업	14.9	14.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그림 1] OECD 국가의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자영업자 비중(2007)

(단위: %)



주: 일본과 포르투갈은 2006년 기준.  
 자료: OECD STAN data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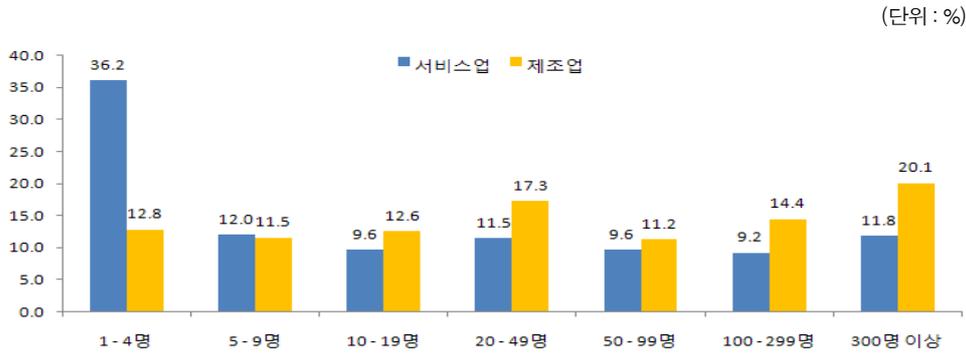
<표 4> OECD 주요국의 서비스업과 제조업에서의 자영업자 비중(2007)

(단위: %)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	스웨덴	영국	미국
서비스업	31.3	9.9	11.3	6.9	4.8	11.0	5.7
제조업	14.6	6.8	4.2	5.4	2.0	8.7	2.5

주· 자료: 앞의 그림과 동일.

[그림 2]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사업체규모별 종사자 분포(2008)



자료 : 통계청(2008), 「전국사업체조사」.

서비스산업에서 자영업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소규모 사업체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게 나타나는데, 2008년 기준으로 서비스산업 중 종업원 4인 이하 사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86.3%이다. 제조업의 63.7%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제조업에서 1~4인의 소규모 사업체 종사자수는 12.8%를 차지하는 데 반해 서비스업에서는 36.2%를 차지하여 서비스업 고용이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규모 사업체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2 참조).

매출액 규모를 살펴보면, 서비스업에서 1억 원 미만의 매출액 실적을 보이는 사업체가 전체 서비스업의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5천만 원 미만의 매출액 실적을 보이는 영세사업체도 4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매출액 규모 1억 원 미만 사업체에 전체 서비스업 종사자의 29%가 고용되어 있다.

우리나라 서비스 부문에서 자영업자나 소규모 영세사업체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서비스산업이 덜 발달해 있고 고용 측면에서도 비공식적 특성이 높은 고용관계에 놓여 있는 근로자가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점이 서비스 부문의 선진화가 요구되는 일차적인 근거가 된다.

<표 5> 서비스업의 매출액규모별 분포(2008)

(단위 : %)

	5천만 원 미만	0.5~1억 원	1~5억 원	5~10억 원	10~50억 원	50~100억 원	100~200억 원	200~300억 원	300억 원 이상
사업체수	40.9	21.7	26.6	4.5	5.1	0.9	0.2	0.1	0.1
종사자수	16.2	12.5	25.8	8.4	18.6	6.0	4.0	1.8	6.7

자료 : 통계청, 「도소매업조사」, 「서비스업조사」,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조사」.

## 2. 고용형태 다양화와 고용 불안정성

제조업이 대체로 표준화된 상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작업환경이나 작업과정이 정형화되어 있는 반면, 서비스업은 무형의 재화를 생산하고 작업장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작업환경이나 작업과정이 유동적이고 재량의 여지가 많다. 이 때문에 서비스업의 경우 고용형태가 제조업에 비해 훨씬 다양화되게 된다.

또한 비교적 동질적인 고용 특성을 갖는 제조업과 달리 서비스업은 매우 이질적인 업종들로 구성되어 있다. 예컨대 가사서비스업이나 숙박·음식점업은 대부분 저숙련 노동에 의존하는 반면, 전문과학기술서비스나 교육서비스 분야에는 종사자의 3분의 2가 대졸 이상 고학력자로서 전문직 종사자가 주를 이룬다. 이러한 서비스업 특성상 고용형태나 고용조건에서도 업종별로 매우 큰 편차를 보일 것임을 짐작해볼 수 있다.

<표 6>은 대분류 서비스업종별로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를 살펴본 것이다.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임시일용직 비중(44.9%)도 높고 고용형태상 비정규직 비중(36.6%)도 확연히 높다. 서비스업에서 한시고용, 시간제고용, 비전형고용의 비중은 제조업의 2배 내지 4배에 달한다.

서비스 업종별로도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저숙련 업종인 가사서비스업과 숙박·음식점업에서는 대다수가 임시일용직 형태로 고용되어 있는 반면, 고숙련 업종인 국제기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문화·정보서비스업의 경우는 임시일용직 비중이 제조업보다 낮게 나타난다.

비정규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은 용역직 형태의 한시고용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전체 근로자의 약 78%가 비정규 고용형태를 취하고 있다. 가사서비스업에서는 근로자의 69%가 가내/일일근로나 시간제 근로 형태의 비정규직 고용으로 취업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3 참조).

부동산임대업, 금융보험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등에서도 비정규 고용이 40% 이상을 차지하는데, 부동산임대업과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에서는 한시고용의 비중이 높은 반면, 금융보험업은 특수고용형태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밖에도 국제기관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서비스업종에서 한시적 고용이나 비전형 고용에 의존하는 정도가 제조업에 비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업에서 이처럼 비정규적 형태의 고용이 많다는 것은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비스업 근로자의 평균근속연수는 4.9년으로 제조업의 5.7년에 비해 0.8년이 적다.

<표 6> 서비스 업종별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2009)<sup>1)</sup>

(단위: %)

	구성비 (전산업=100)	임시일용직 <sup>2)</sup> 비중	비정규고용 <sup>3)</sup> 비중	비정규고용		
				한시적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비전형근로자
제조업	19.9	26.4	16.2	12.2	2.9	3.5
서비스업	69.7	44.9	36.6	23.1	10.3	13.7
G 도·소매업	11.9	58.9	33.1	15.0	12.0	13.6
H 운수업	4.1	27.7	22.0	16.1	3.2	5.7
I 숙박·음식점업	6.7	87.1	38.8	20.1	20.5	7.9
J 문화·정보서비스	3.6	15.9	22.7	18.5	1.9	5.0
K 금융보험업	4.5	36.5	43.1	13.6	1.4	30.7
L 부동산·임대업	1.8	52.5	43.6	30.6	6.7	13.9
M 전문과학기술서비스	4.3	12.4	17.5	15.9	1.5	1.1
N 시설관리·사업지원	5.5	43.5	78.2	53.0	6.1	68.1
O 공공행정	6.4	34.8	36.9	35.1	11.3	1.3
P 교육서비스	8.9	37.1	34.5	22.7	15.2	5.6
Q 보건·사회복지	5.6	29.9	30.6	25.8	10.0	1.5
R 예술·스포츠·여가	1.5	60.3	40.2	24.2	17.0	6.7
S 기타 개인서비스	3.9	57.0	28.3	14.0	9.7	11.5
T 가사서비스	0.9	100.0	68.9	24.8	39.2	35.2
U 국제기관	0.1	6.3	10.0	3.5	6.5	0.0

주: 1) 2009년 3월과 8월의 평균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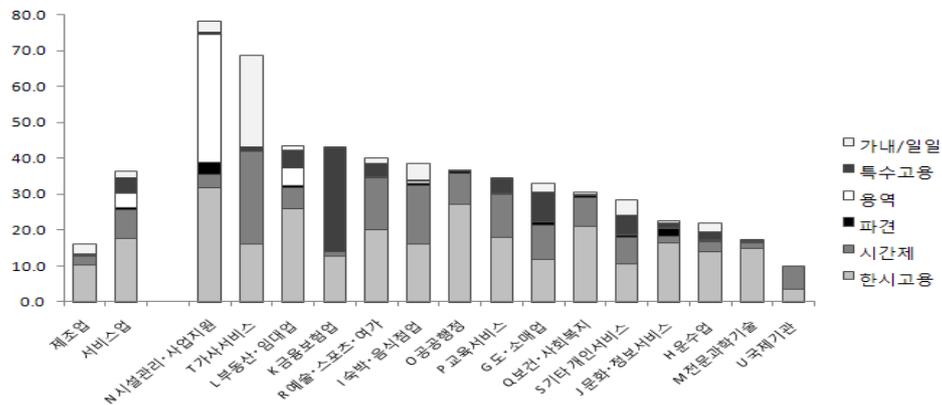
2) 고용지위상 상용직이 아닌 고용형태임.

3) 고용형태상 한시고용, 시간제고용, 비전형 근로자(용역, 파견, 특수고용 등)를 포괄하며, 각 범주는 중복될 수 있어 합계가 일치하지 않음.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09. 3, 2009. 8. 원자료.

[그림 3] 서비스 업종별 비정규 고용형태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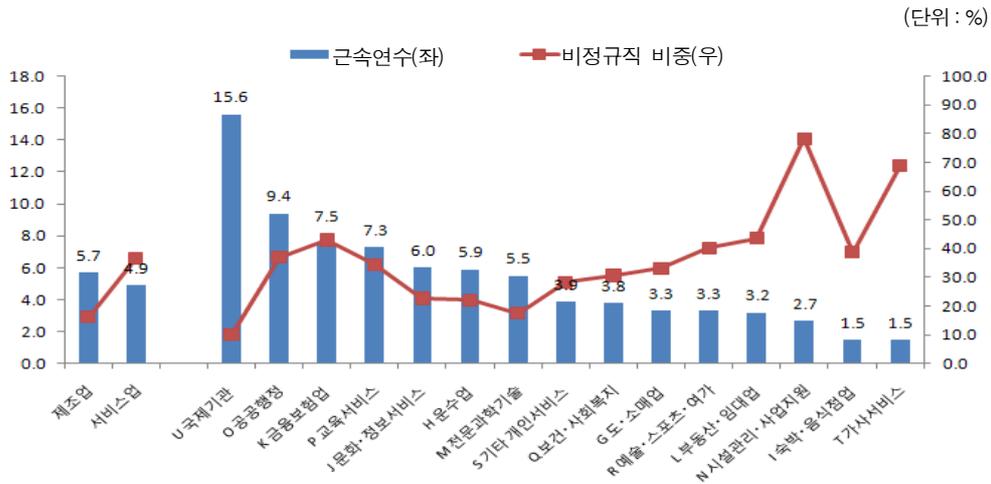
(단위: %)



주: 비정규 고용형태의 세부 항목은 편의상 업종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표준화되어 실제 수치 보다 적게 표시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09. 3, 2009. 8. 원자료.

[그림 4] 서비스업 근로자의 평균근속연수(2009)



자료: 통계청(2009), 「경제활동인구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서비스업종별로 살펴보면, 비정규직 비율이 높을수록 대체로 평균근속연수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는데, 예외적인 부문이 공공행정, 금융보험업, 교육서비스업 등이다(그림 4 참조). 이들 업종은 공공부문으로서 고용이 보장되거나 노조조직률이 높은 업종에 해당하여 업종 내에서 내부노동시장에 의해 보호되는 근로자와 그렇지 못한 근로자가 명확하게 구분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이나 숙박·음식점업, 가사서비스업과 같은 저숙련,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종에서 근로자의 평균근속연수는 3년이 채 안되어 고용이 매우 불안정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안정성이 떨어지지만, 근로자가 사회보험과 같은 제도적 안전장치로부터 배제되어 있을 가능성은 오히려 더 높다.

서비스업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제조업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며(표 7

<표 7>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사회보험 가입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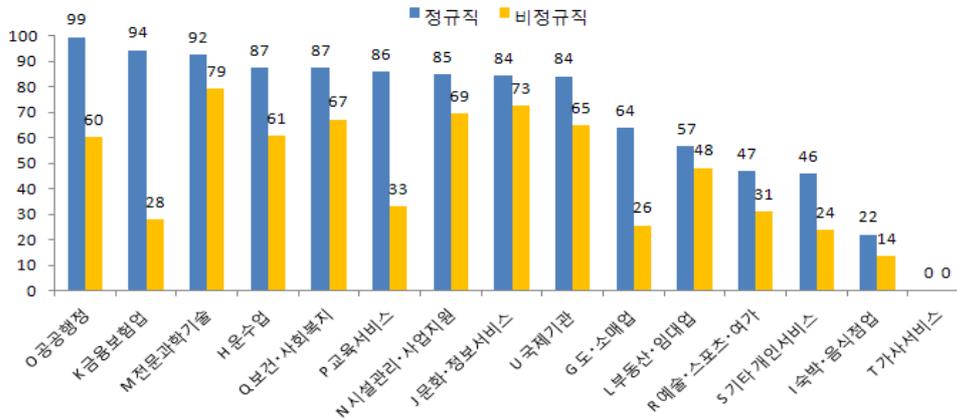
	서비스업			제조업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건강보험	96.2	97.6	93.7	98.1	98.8	94.4
국민연금	69.2	80.2	50.1	85.3	89.7	62.8
고용보험 <sup>1)</sup>	53.0 (62.7)	58.6 (73.5)	43.5	82.3	87.4	56.3

주: 1)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등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님. ( )안은 이들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간주하였을 경우의 가입비율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09. 3, 2009. 8. 원자료.

[그림 5] 서비스 업종별 고용보험 가입률

(단위 : %)



주: O, P 업종에서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간주.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09. 3, 2009. 8. 원자료.

참조), 특히 고용보험 가입률은 53.0%(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포함 62.7%)에 불과하여 제조업의 82.3%에 20~30%p나 못 미치고 있다.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43.5%에 불과하여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노동시장에서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내몰려져 있다고 하겠다.

저숙련 노동에 의존하는 저부가가치 서비스 업종일수록 직장 내에서도 노동시장 전체로든 근로자의 고용불안은 더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이들 업종에서 고용유연화를 통한 비용절감 유인이 더 클 수 있지만, 생산품이 결국 노동의 질에 의존해야 하는 서비스업의 특성상 근로자의 고용안정이 전제되지 않으면 서비스의 질이 개선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저부가가치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 3. 서비스업의 숙련구조 변화

서비스 부문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서비스 부문의 숙련구조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는지는 우리 서비스산업의 발전전망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2004~2009년 기간 중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94.9만 개의 일자리가 증가하였는데, 서비스산업에서 150.9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난 반면, 재화산업에서는 56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재화산업 내에서도 생산관련직은 63.1만 개가 줄었지만 서비스관련직은 7.1만 개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즉 새로 생기는 일자리는 서비스산업이거나 서비스직종이고 없어지는 일자리는 주로 재화산업 특히 생산관련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서비스산업은 제조업에 비해 고학력, 고숙련 노동 비중이 높다. 학력 구성

<표 8> 2004~2009년 기간 중 산업<sup>1)</sup>, 직종<sup>2)</sup>별 고용 변화

(단위: 천 명, %)

	서비스산업	재화산업	전 산업
서비스관련직	836 (88.2)	71 (7.5)	907 (95.6)
생산관련직	673 (70.9)	-631 (-66.5)	42 (4.4)
전 직종	1,509 (159.1)	-560 (-59.1)	949 (100.0)

주: ( )안은 전체 증가 일자리 대비 구성비.

1) 표준산업분류(9차)상 G~U는 서비스산업, A~F는 재화산업으로 분류.

2) 표준직업분류(6차)상 1~5는 서비스관련직, 6~9는 생산관련직으로 분류.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4~2009.

<표 9>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학력 및 직종 구성

(단위: %, %p)

학력	서비스업	제조업	직종	서비스업	제조업
중졸 이하	16.9 (-2.4)	17.6 (-5.3)	관리전문직	25.7 ( 3.4)	13.4 ( 1.0)
고졸	39.6 (-4.0)	49.7 (-1.7)	사무직	16.1 (-0.2)	18.0 ( 1.9)
초대졸	12.8 ( 2.1)	13.4 ( 3.7)	서비스판매직	33.4 (-5.2)	2.5 (-0.6)
대졸	26.1 ( 3.6)	17.5 ( 2.9)	기능직	11.0 ( 0.0)	52.7 (-1.6)
석사 이상	4.6 ( 0.8)	1.9 ( 0.4)	단순노무직	13.7 ( 2.1)	13.4 (-0.8)
전 체	100.0	100.0		100.0	100.0

주: ( )안은 2004년 대비 구성비 변화.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4·2009.

으로 보면 서비스산업에서 대졸 이상자 비중이 높고 직종 구성에서는 관리·전문직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표 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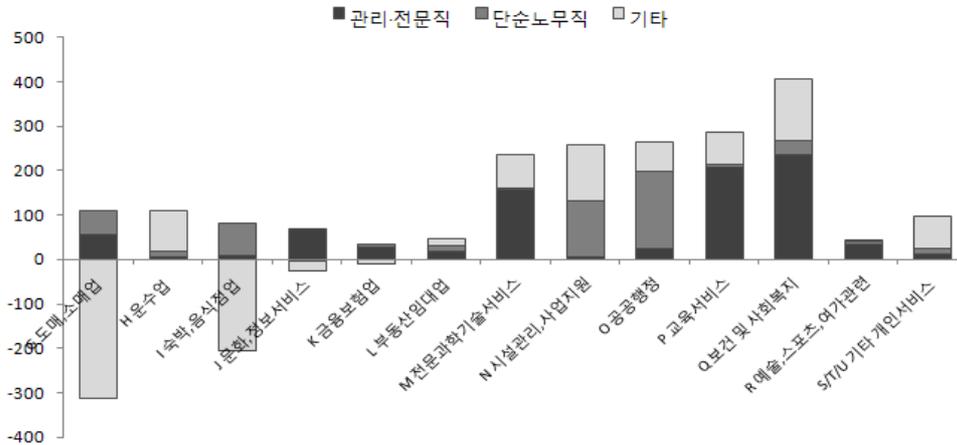
그러나 최근의 변화 양상을 보면 서비스산업에서 저학력자 비중의 감소가 제조업에 비해 더디고 직종 구성에서도 고숙련 직종인 관리전문직이 늘었지만 저숙련 직종이라 할 수 있는 단순노무직의 비중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조업과 달리 서비스산업에서는 숙련구조가 단일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그림 6]은 서비스산업 세부업종별로 2004~2009년 기간 중 직종의 변화를 살펴본 것이다. 서비스업종별로 숙련 수요에서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업, 문화·정보서비스업 등에서는 관리자나 전문직과 같은 고숙련직이 크게 늘어난 반면,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 공공행정, 숙박·음식점업 등에서는 단순노무직과 같은 저숙련직을 중심으로 고용이 크게 확장되었다. 일부 서비스업종에서 저숙련노동에 대한 의존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

[그림 6] 서비스 업종별 근로자 직종의 변화(2004-2009)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4~2009.

는 점은 우리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관련해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이다.

황수경(2007)에서는 상세 직업정보를 토대로 인지적 숙련(cognitive skills), 육체적 숙련(physical skills), 미세 숙련(fine skills), 상호적 숙련(interactive skills) 등 네 가지 일자리 숙련지표를 구성하고 그 변화를 분석하였는데<sup>1)</sup>, 이들 일자리 숙련지표를 이용해 살펴보면, 학력이나 대분류 직업을 통해 파악되는 것보다 서비스산업의 저숙련화가 보다 심각하게 드러난다.

<표 10> 2002-2006년 사이 서비스산업과 재화산업의 숙련점수 변화

	인지적 숙련	육체적 숙련	미세 숙련	상호적 숙련
전 산업	0.84	-0.50	-0.54	0.58
서비스산업	-0.01	0.80	-0.80	0.50
서비스직	-0.07	0.66	-0.82	0.66
생산직	-0.25	0.84	-0.55	-0.75
재화산업	2.12	-1.52	-0.41	0.28
서비스직	0.85	-0.34	-1.90	0.83
생산직	1.41	-0.41	0.24	-0.13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직업사전」;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2002~2006.  
황수경(2007)에서 재인용.

1) 각각의 숙련지표는 공통요인분석(common factor analysis)을 통해 추출된 상호독립적인 일자리 숙련 지표로서 숙련요소 혹은 숙련유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분석기간(2002~2006) 중 재화 부문에서는 육체적 숙련이나 미세 숙련과 같은 전통적인 숙련을 요구하는 일자리가 줄어들고 인지적 숙련, 상호적 숙련과 같은 현대적 의미의 숙련을 요구하는 일자리가 증가한 반면, 서비스 부문에서는 상호적 숙련을 요구하는 일자리는 증가하였으나 인지적 숙련을 요구하는 일자리는 근소하게 감소하였고 오히려 육체적 숙련을 요구하는 일자리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서비스 부문에서의 저숙련화 경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고용 확장이 이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은 단지 고용의 질에 관한 우려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경쟁력에 관한 우려를 제기한다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 IV. 맺음말

선진국의 경험에 비추어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여전히 성장 및 고용창출 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서비스업에서는 수요 확대에 대응하여 고용이 양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부가가치율이 저하되는 등 저숙련 노동에의 의존성이 증대되어 저부가가치 함정에 빠져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서비스산업에서 양적으로 고용이 증가하더라도 고용 증가에 상응하는 생산성 증가가 수반되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성장동력을 훼손하여 결과적으로 고용창출 자체가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서비스업에서의 이러한 고용창출은 지속가능하지 않거나 서비스업에서의 고용의 질을 떨어뜨려 고용구조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결국 서비스업 고용창출은 서비스업 일자리수 증가 그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고부가가치, 고생산성 전략과 결합되어 지속가능한 양질의 서비스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될 수 있는가에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11]

#### <참고문헌>

황수경(2007), 「서비스화가 일자리 숙련구조에 미친 영향」, 『노동경제논집』, 30(3), pp. 1~41.

\_\_\_\_\_ (2009),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고용전략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황수경 외(2010), 『고용구조 선진화를 위한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 역량제고 방안』,  
한국노동연구원.

Schettkat, R. and L. Yocarini(2006), “The Shift to Services: A Review of the Literature,”  
*Structural Change and Economic Dynamics* 17(2), pp.127 ~ 147.